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부터 ‘폭주’

첫날 801명 지급 결정... 21일 곧바로 지급키로
전담대응팀 실재없이 밀려드는 전화로 ‘복세통’
2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현장 접수

“5부제 시행에 따라 금요일날 다시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20일 제주도청 별관 3층 스마트워크 비즈니스센터에 마련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에서는 15명의 직원들이 밀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출생연도 5부제 미인지 ▷건강보험료 내역 문의 ▷온라인 신청 절차 질문 ▷지급일 ▷대상자 제외 사유 문의 등 다양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전담대응팀 밖으로 나온 직원은 “오전 9시부터 한 번도 선적이 없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처음 나왔는데, 이마저도 전화기에 수신거부를 해놓아야 했다”며 “가장 많은 문의는 5부제를 인지하지 못해 ‘왜 신청이 안되냐’, ‘건강보험료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801명에 대한 지급을 21일 진행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보다 일주일 먼저 시작된 온라인 접수는 세대주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행복드림포털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신청가능 대상자로 나올 경우 ‘개인정보동의’만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지역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곧바로 지급결정이 이뤄지며,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특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5월 8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현장 접수는 오

는 27일부터 실시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지원금도 세대주 계좌로 입금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신청이 한 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온라인 접수를 현장 접수보다 일주일 먼저 시행하게 됐다”며 “신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0일 제주자치도청 별관 3층 스마트워크 비즈니스센터에 마련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에서 15명의 직원들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재난 선제적 대비 본격 추진

도,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TF 가동·실태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여름 태풍, 호우 등 풍수해보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5월 14일까지 사전대비를 마무리하고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 도로·하

천·건축·교통 등 18개 분야별로 33개 부서·99명으로 구성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민홍보와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점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상황별 대처 행동요령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다양한 행동요령을 수록한 ‘재난대비 우리생활 안전 길라잡이’ 6000부를 제작해 이

달말 읍면동과 학교 등을 통해 배부하고, 태풍·호우 및 폭염 대비 도민 행동요령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해 6월부터 8월까지 송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우기를 대비해 저류지 289개소, 대형공사장·자연재해취약개선지구·월파지구·상습침수지역·하천 및 세월교 등 자연재해취약지역 790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미비사항을 조치한다. 해안저지대·해일침수림·하천범람·급경사지·차량침수 등 인명피해우려지역 89곳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행정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명피해예방 관리체계구축 교육에도 나설 방침이다. 오은범기자

최대 400만원... JDC 꿈꾸는 장학생 모집

학업·예술·체육 등 분야
제주지역 학생 24명 선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5월 4일까지 ‘JDC 꿈꾸는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장학생 모집은 학업,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잠재력 있고,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제주지역 학생 24명을 선발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서는 JDC홈페이지(www.jdcenter.com)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면 되며, 접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메일(childjeju@childfund.or.kr)과 우편(제주시 오남로20, 2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예술, 체육 분야는 광역시,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학업 분야는 고등과정에서 한해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참고해 우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064-753-3703)로 문의하면 된다. 송은범기자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 ‘한마음’

5월 마늘 수확철 앞두고 필요 일손 확보 비상
제주도, 유상인력·자원봉사자 20일부터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협,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급 구직자와 자원봉사자 등 영농인력 모집에 나선다. 오는 5월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앞두고 20일부터 유상인력 200명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만 85세 미만으로 올해 해외방문 이력이 없고, 영농(마늘수확) 작업이 가능한 도내 거주자이다.

유상 인력은 개인 및 단체, 또는 4~5명이 조를 이뤄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인건비와 중식비를 부담하고 도는 차량과 보험료, 유류대를 지원한다.

자원봉사자는 농협, 공무원, 농업인 등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30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유상 및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오는 5월 20일까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720-1225), 지역농협(지도계)으로 방문 및 전화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 및 단체는 마늘농가 작업 시기에 맞춰 5월 10일부터 종료 시까지 마늘 수확작업에 투입된다.

이와함께 도는 국방부가 농촌일손 돕기에 군부대 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내 군부대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군부대 장병 인력 투입 시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청 농가에 대한 현장실사(농가 내 자가격리자 여부 등)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영농지원 상황실을 통해 지역별과 품목별 농작업 추진 현황과 인력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인력 부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상 인력과 자원봉사 모집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달 초부터 도 농축산식품국과 농협제주본부 농업인력지원센터에 코로나19 대응 영농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영농지원 상황실은 ▷농촌일손 돕기 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 ▷농기계 플랫폼 운영 및 영농자재 적기 공급 ▷품목별 영농작업반 구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오은범기자 eioh@ihalla.com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ICC JEJU

도민에게 사랑받고 행복주는 ICC JEJU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함께 뛰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TEL 064(735-1000(내)) FAX 064(738-8988) www.iccjeju.co.kr